

인강 대신 선물 교재 봐도 되는지 + "잘" 공부한다는 기준 + EBS 오류에 대한 제 생각

210724 여우별 드림

[본 글은 제가 메일 답신 드린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고작" 이런 걸로 질문드려 죄송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는 "고작"의 문제가 아니며

언제든지 이와 같은 학습 고민 있으시면 메일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국어 인강 안듣고 피램 봐도 되는지?" 에 대한 비유, 확 와닿았습니다!==

전 말씀해주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지 못하여 뜬구름의 범주는 잘 모르오나

사람마다 인강이 맞는 사람도, 텍스트를 통한 깊이 있는 이해가 맞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분들을 보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강이 안맞는 사람도, 텍스트가 안맞는 사람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어떤 순서로 공부하셔야 하냐고 여쭙보셨는데

어떤 교재로 공부하시건

한 커리의 메인 교재만 제대로, 잘 체화하셔도 1등급은 가능합니다.

(제 시리즈를 예로 든다면 "선물" 교재, 은사님 교재를 예로 들자면 "뉴런"이 되겠지요)

(제가 드리는 자료는 꽤 많은 편이나, 역설적으로 공부하는 심플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제대로, 잘"이 추상적일 뿐이지요

"잘"을 예로 들자면

제가 올린 글 중 (댓글 달아주신) 가장 최근 글 "치트키 드림"에 생1 22학년도 6월 평가원 14번 문항이 있습니다.

전 선물 교재를 집필하며, 수능특강 내에서 연계된 문항을 선물 교재에 3월에 수록했고

그 논리 과정을 해설로 서술한 바가 있기에 실제 6평 14번을 눈으로 풀고 별 생각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22 6평 14번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길래 사실 놀랐습니다.

갑자기 다른 길로 썰 듯 하나

EBS 수특, 수완의 경우 추천 글에서 논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https://orbi.kr/00038715670>

꽤 괜찮은 N제입니다.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맞겠지만서도 EBS 교재 한 권의 가격이, EBS 교재 내 한 문제에 들어가는 이미지 가격보다 싸입니다.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일 것 압니다, 다만 본 문장은 팩트입니다.)

전 EBS에 대해 "연계가 확실히 되는 문항들을 자선 봉사(PDF 파일도 제공하기에)하는 집단"이라 생각하여

그저 오류가 있는 문항이 있다면 선물 교재나 킬포 모의고사에 정상화시켜 수록할 뿐입니다.

(사실 저도 몇 번 이의 제기 해봤습니다ㅎㅎ;; 개체수 음수도 수능완성 나오자마자 2일만에 알았구요...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 EBS 내에서도 속사정이 있겠지... 인간이 하는 일이니... 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에 대한 제 자세한 의견은 제가 올린 게시물 중 "확통 & 쪽지" 게시글을 참고해주시면 더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증거]



25 **여우별'-'** · 920399 · 07/05 06:40 · MS 2019 (수정됨)



저 또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었던 문항이며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전달드리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참이었는데

마침 이럴수가 님께서 좋은 칼럼을 올려주셨습니다.

[문제 제기 1부]

[https://orbi.kr/00038364465/%EC%83%9D2%20%EC%88%98%EC%99%84%20107p%208%EB%B2%88%EB%AC%B8%EC%A0%9C\(1%EB%B6%80\)](https://orbi.kr/00038364465/%EC%83%9D2%20%EC%88%98%EC%99%84%20107p%208%EB%B2%88%EB%AC%B8%EC%A0%9C(1%EB%B6%80))

[문제 제기 2부]

[https://orbi.kr/00038365878/%EC%88%98%EB%8A%A5%EC%99%84%EC%84%B1%20107%EC%AA%BD%208%EB%B2%88%20%ED%95%B4%EC%84%A4\(2%EB%B6%80\)](https://orbi.kr/00038365878/%EC%88%98%EB%8A%A5%EC%99%84%EC%84%B1%20107%EC%AA%BD%208%EB%B2%88%20%ED%95%B4%EC%84%A4(2%EB%B6%80))

혹여 생명2 선택자 분이시라면 해당 문항을 풀어보신 후

칼럼을 정독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또한 해당 문제를 정상화시켜 올해 출간되는 모의고사에 수록할 예정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EBS 교재는 잘 공부하신다면

단위 시간 당에 있어서

단위 금액 당에 있어서도 효율이 높은 교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해 선물 교재를 7월부터 내는 것입니다.

(EBS 수특, 수완, 6평 반영)

전 본디 잘 단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정적인 말에 누군가는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위의 22 6평 14번 예시를 참고하셔서

"선물 교재와 EBS 교재, 적당한 양의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행하신다면

(평가원, 교육청 기출은 선물 교재에 포함됩니다.)

을 "잘" 공부하신다면

("잘"의 기준을 한 줄 정리하면, 평가원과 EBS가 남긴 시그널이 시험장에서 보이시면 잘 공부한 것입니다.)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명과학1 과목은 타 과목에 비해 문항이 정직하게 나오고

(제가 유전학 과목을 배우며 워낙 고생을 해서... 위치럼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 4연관, 2연관, 1 독립 유전자 지도 추론) "정직"의 표현은 아직 진화가 덜되었다는 뜻 정도로만 받아들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표본이 나름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1, 물1의 객관적 난이도와 등급컷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전 화생물에 모두 약간의 지식이 있어 (PEET 공부) 과목 간 비교가 가능하며 평가원 시험이 출제될 때마다 그에 해당하는 6과목은 모두 풀어봅니다. 그때마다 가장 빠르게 20번까지 질주한 과목은 항상 생1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수능 1등급컷은 거의 생1이 화1 물1보다 낮더군요...)

하반기에 선물 교재 (이는 제가 (중)권과 (하)권을 골라주셨다면 유전 부분은 그냥 드리니) 잘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후기에 울고 웃기에 교재는 제 최선을 다하려 항상 생각합니다;;ㅎㅎ) 감사합니다!